



순수혈통 잇기 위한 오직 한길

1970~80년대 불어온 산업화 열풍으로 지금의 발전된 양계산업을 일궈냈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우리의 고유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잃어가고 있다. 양계에 있어 한국 재래닭은 외국에서 들어와 토착화된 토종닭에 밀려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만 몇몇 뜻있는 지인들이 한국 재래닭 보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인농원 홍승갑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재래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현인농원 홍승갑 대표

재래닭 보존의 기나긴 여정

파주 문산에 위치한 현인농원은 국내 몇 안되는 한국 재래닭 보존농장으로 손에 꼽는다. 홍승갑 사장은 55여년전부터 양계와 인연을 맺으면서 산란계 1천수를 사육군납을 시작으로 양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홍 대표가 재래닭에 관심을 가진 것은 28년전인 40대 초반 중국의 의학서인 본초강목을 읽던 중 '조선 중부 닭은 맛도 좋고 약효도 우수하다'는 내용을 접하고 나서 수소문을 통해 황계라는 것을 알고 찾아 나섰던 것이 시초가 되면서 한국재래닭 보

존에 대한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

10여년에 걸쳐 황계를 재현하기 위해 무리들 중 황색을 띠는 닭들을 집중적으로 선발해서 황계를 추려내게 되었다. 어느 정도 황계의 계통이 확립되고 나서 이후 흑색 색상작업을 통해 재래닭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우리 재래닭은 색상이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25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색상작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백색, 흑색, 회갈색, 적갈색, 은계1호·2호 등 다양한 색을 지닌 닭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많게는 2,000여 마리를 사육했지만 현재는 700여 수를 유지하고 있다.

급이방법도 소규모 사육을 하는 농장의 특성상 일반사료와 달리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닭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산 계곡에서 토착 균을 채취하여 황토 흙에 배양해서 토곡을 만든 다음, 이 토곡에 쌀겨, 활성탄, 목초액, 맥반석, 키토산 등을 넣고 재발효하여 사료에 30% 가미해서 급이한다.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닭이 큰 질병없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계사의 악취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도계시 내장에 잔존물이 거의 없고 육질 또한 쫄깃쫄깃해 우리 재래닭만의 또다른 맛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우리 재래닭 이해토록

홍승갑 대표는 현인농원의 설립목적은 “옛 조상들이 기르고 우리 고유의 재래닭을 복원·유지하며 보존연구를 통해 관광화하여 일반인들에게 우리 재래토종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한국 재래닭을 홍보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서고 있다. 본회에서 주최한 제1회 한국양계박람회가 시작된 1991년도

부터 지난 2005년 한국축제축산박람회까지 빠짐 없이 지속적으로 재래닭을 전시하여 재래닭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1994년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연구사업의 위원으로 참가하여 그 동안 연구해온 다양한 종류의 재래닭과 종란을 학계와 정부에 제공하여 종자보존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에도 일조를 했다.

재래닭 보존과 동시에 한국 재래닭 홍보관 도구상 중에 있다. 그동안 국내외를 다니면서 모아온 각종 전시물들과 재래닭 주변에 있었던 물건들을 모아 우리 재래닭의 역사와 유래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것이다.

지역 특성있는 재래닭 육성에 배려를

산업적으로 보면 재래닭은 작업회전도가 낮아 수익성이 낮은 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재래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존차원에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 재래닭은 외국의 관상용 닭과 비유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미적가치를 자랑하고 유전자가 월등하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한다.

일본은 40개가 넘는 지방계 모두 특색있는 산업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역 재래닭을 육성하고 지속·보존하도록 지역내에서만 소수로 육성케 하여 지역 특화상품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배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 재래닭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래닭 보존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일본과 같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 순수 우리혈통의 우리 닭을 육성하고 이어가길 희망했다.

